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직업 유무 중심으로*

이 혜 민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 졸업

안 도 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중용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직업이 있는 집단과 직업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350명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자살행동 척도, 중용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중용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두 집단에서 모두 우울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는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는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살시도가 포함된 자살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실제적 자살행위 예방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직업이 있으나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중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직업, 청년,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 중용적 태도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도연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부교수 /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8225 / E-mail: psydoyoung@hs.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주로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김영범, 2018; 박연환, 강희선, 2008; Cornwell & Waite, 2009), 국내에서 2019년에는 3.1%였던 19-34세 청년의 고립 비율이 2021년에는 5%까지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바,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유민상 외, 2021; 통계개발원,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고용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어려움, 높은 주거 비용,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중장년 및 노년기의 소득 불평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애 전반적인 문제로 연결되기에(김춘남 외, 2018; 박찬웅 외, 2020),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전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와의 물리적 및 심리적 단절을 의미하며 Cornwell과 Waite(2009)는 객관적 고립인 사회적 단절과 이로부터 야기된 우울, 불안 등을 포함한 지각된 고립, 즉 주관적 고립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고립 개념에 더해 청년의 경우 생애주기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청년기 사회적 고립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진학 실패,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와 관련된 특성일 수 있다(김재희, 박은규, 2016). 즉,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사회적 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 과업 달성의 지체(김석호 외, 2017; 김지경, 정연순, 2015) 등이 노년기와 달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한 경쟁 체제 등 한국의 특징을 반영한 관점도 필요하다. 특히 성인 초기 발달과업인 취업

및 경제적 독립,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성취하는 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고립된 청년들의 불안, 공포, 무기력, 체념, 낙담, 수치심 등의 감정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정수남 외, 2012). 그러나 국내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질적 연구(최지현 외, 2022)를 살펴보면 한국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과 직업의 유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직업이 있어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지현 외(2022)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직업이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을 연구하였으며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싶거나 소속감이 필요하지만 소속감이 없거나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Zavaleta et al., 2017)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직업 활동은 고립감을 상쇄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장기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직업 박탈(occupational deprivation)은 삶의 만족을 제한하고 일을 통해 희망, 자부심, 행복감 등 긍정적 정서를 얻기 힘들게 만든다(권석만, 2008). 라체린과 이현경(2013)에 따르면, 미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인 집단보다 우울감과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재희와 박은규(2016)의 연구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한 경우보다 고립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탁진국(2010)은 실업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재취업성공을 통해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가, 다시 실업 상황에 처하면 정신건

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류주연 외(2023)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친구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직업에 유무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양상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행동의 관계를 직업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은 청년층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허재홍, 오충광, 2018)와 정신건강(안병덕, 이선영, 2016; 최태진, 2017)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망이 약해지고 고립이 심화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관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 절망감, 심지어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Scott et al., 2004). 이렇듯 사회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 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Cloutier-Fisher et al., 2011).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응답자에 비해 19-34세 청년 응답자는 외로움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모두 높고(Griffin, 2010), 사회적 고립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우울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ämmig, 2019). 이는 청년층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리 및 정신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김형주 외, 2018). 사회적 고립과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모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은 우울과 연관되고(Matthews et al., 2016)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수인, 2016). 더불어 이묘숙(2012)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외로움이 자살생각 혹은 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립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의 청년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7.6명(20대), 27.5명(30대)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는 21.7명(20대), 27.1명(30대)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0만명당 21.4명(20대), 25.3명(30대)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통계청, 2023) OECD 국가 중 청년층 자살률이 1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6개월 내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년들의 비율도 22.9%로 높아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김지경 외, 2018)되고 있다. 또한,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혼란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부여하여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데(장창민 외, 2018), 1명이 자살로 사망하면 4-6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Capuzzi, 2004). 즉, 자살률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주영 외, 2012). 동일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자살을 생각함에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절망감과 우울에 빠져 자살을 행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기에 자살행동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육성필, 2002). 보호요인이라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완화시키며 개인의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을 의미한다(심미영, 김교헌, 2005).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돕는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유계숙, 손현경, 2015),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가족탄력성, 가족과 친구의 지지, 부모와의 애착관계 뿐 아니라(김정민, 박준희, 2011; 김효정, 2011; 최윤정, 2012)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낙관성도 자살생각 및 행동에 유의미한 보호요인(Hirsch et al., 2007; Lucas et al., 202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자살률에 비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유계숙, 손현경, 201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살 및 자해 위험성, 정서조절 곤란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중용적 태도가 마음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연, 2022). 또한, 중용적 태도가 자기비난의 영향을 완화하여 불안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안도연, 김진숙, 2024), 중용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용적 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변인에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조절 변인으로써 중용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중용적 태도는 적절한 상황 대처와 처세 선택을 의미하는 '시중(時中)',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불편불의(不偏不倚)', 타인에 대해

열려 있으며 관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안도연, 2018). 이러한 중용적 태도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유연성과 조망 수용 및 정서적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적절한 표현과 관련되어 우울 및 불안 등과 부적 관계, 삶의 만족, 자존감, 대인관계 등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등 개인적 변인 및 대인관계적 변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안도연, 2022). 또한, 중용적 태도는 갈등 관계 상황에서 발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성취를 할 수 있는 실용적 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안도연, 이훈진, 2016). 중용적 태도를 기르는 것은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안도연, 이훈진, 2019a),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부적응적인 증상뿐 아니라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한나리, 2009; Van Orden et al., 2008). 따라서 중용적 태도는 부적응적인 증상에 일반적인 보호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과의 관계에서 조절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종합해보면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은 우울 및 자살행동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중용적 태도가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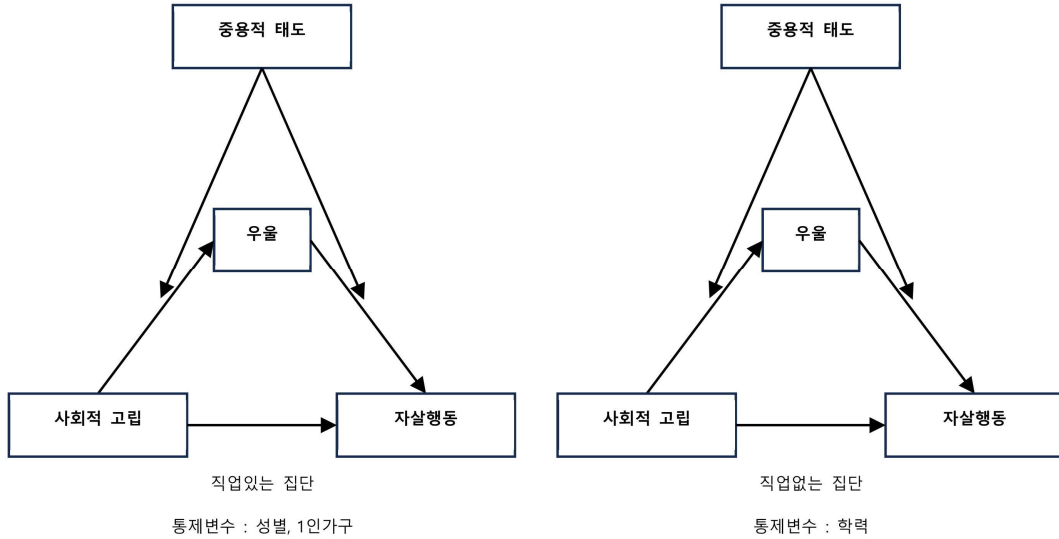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직업이 있는 고립 청년들도 포함하였으나, 직업의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행동의 관계, 중용적 태도의 관계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직업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의 척도점수가 직업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용적 태도의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업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가 사회적 고립, 우울 및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2023-02-004)을 받았으며 연구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조사기관을 통해 수집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성인 남녀 350명($M = 29.08$, $SD = 3.79$)으로, 이 중 '현재 직업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직업이 있는 연구 참여자가 214명, 직업이 없는 연구 참여자가 136명이었다. 직업이 있는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은 102명(47.66%), 여성은 112명(52.34%)이며 만 19세 이상 만 29세 미만은 90명(42.05%), 만 30 이상 만 34세 이하는 124명(57.95%)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7명(7.94%), 대학교 재학/졸업 179명(83.65%), 대학원 재학/졸업 18명(8.41%)이며 1인 가구가 78명(36.44%), 1인 가구가 아님 136명(63.46%)이었다.

직업이 없는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은 73명(53.67%), 여성은 63명(46.32%)이며, 만 19세 이상 만 29세 미만은 85명(62.50%), 만 30 이상 만 34세 이하는 51명(37.50%)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9명(13.97%), 대학교 재학/졸업 114명(83.82%), 대학원 재학/졸업 3명(2.21%)이며 1인 가구가 26명(19.11%), 1인 가구가 아님 110명(80.88%)이었다.

측정도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척도 (A Scale of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dults)

최지현 외(2022)이 한국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척도로 사회적 접촉, 정체성 불안,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인터넷에서의 관계, 사회적 지원으로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3이며 본 연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 (The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ndloff(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 증상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전경구 외(2001)이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CES-D 척도는 신체/행동 둔화,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대인관계 문제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응답 시기로부터 1주일 이내에 했던 우울 경험의 빈도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외(2001)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4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행동 척도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BQ-R])

1981년 Linchan이 개발한 34문항의 자살행동 척도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빈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후 Osman et al. (2001)에 의해 4문항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sman et al.(2001)의 SBQ-R을 이해선, 권정혜(2009)가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1번 문항은 평생 동안의 자살생각 및/또는 자살시도를 측정하고, 2번 문항은 지난 12개월 동안 자살생각의 빈도를 평가하며, 3번 문항은 자살시도의 위협 정도를 정량화한다. 4번 문항은 향후 자살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5점에서 7점 척도로 구성된다. 이해선, 권정혜(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이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이 .79로 나타났다.

중용척도 (Zhongyong Questionnaire [ZQ])

안도연과 이훈진(2017)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용에 관한 경험을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시의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반영하는 시중(時中) 요인, 편향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편불의(不偏不倚) 요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을 뜻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요인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응답한다. 표준화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3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58로 진행하였고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인 수준을 저($M - 1SD$), 중(M), 고($M + 1SD$)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과 Hayes(20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version 4.3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척도의 신뢰도 검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바, 직업의 유무로 나누어 상관분석 후 집단 간 상관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복원추출 후 경험적 분포를 만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Preacher et al., 2007). 또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 직업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사회적 고립은 우울 및 자살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중용적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1). 또한, 직업의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 및 중용적 태도의 관계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했던 바, 집단 간 상관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업이 있는 집단과 직업이 없는 집단의 상관관계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고립과 우울에서의 상관관계수 차이가 유의했다, $z = 1.82, p < .05$.

표 1. 직업 유무에 따른 청년층 집단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직업이 있는 집단 ($n = 214$)				직업이 없는 집단 ($n = 136$)			
	1	2	3	4	1	2	3	4
1. 사회적 고립	1				1			
2. 우울	.75***	1			.65***	1		
3. 자살행동	.46***	.57***	1		.41***	.64***	1	
4. 중용적 태도	-.53***	-.47***	-.32***	1	-.52***	-.36***	-.28***	1
M	50.88	17.63	6.05	67.36	60.50	23.61	7.11	63.80
SD	13.64	12.76	3.27	10.89	15.19	13.23	3.61	10.33

*** $p < .001$.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각 집단의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반으로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성별과, $t = -3.02, p < .05$, 1인 가구 여부가, $t = 2.10, p < .05$, 로 자살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력에서, $t = 4.31, p < .05$, 로 자살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통제한 뒤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성별과 1인 가구 여부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나, $B = .02, t = 1.27, ns$, 우울의 증가는 유의하게 예측했다, $B = .65, t = 13.42, p < .001$.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동시 투입했을 때 사회적 고립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B = .11, t = 4.95, p < .001$, 완전 매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학력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나, $B < -.001, t = -.24, ns$, 우울의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B = .54, t = 7.73, p < .001$.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동시 투입했을 때 사회적 고립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B = .17, t = 7.13, p < .001$, 완전 매개하였다.

우울을 경유하여 자살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이 있는

집단의 경우, $B = .0842, CI [.0498, .1198]$, 직업이 없는 집단의 경우, $B = .4088, CI [.2807, .5408]$, 으로 두 집단 모두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95% 신뢰수준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통해서 자살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그 다음으로 PROCESS macro Model 58을 사용하여 직업이 있는 집단과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거쳐 자살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는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행동으로 가는 간접경로에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졌으나 우울에서 자살행동으로 가는 간접경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2, 그림 2).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B = -.0011, CI [-.0019, -.0002]$ 로 신뢰구간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건부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중용적 태도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용적 태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3).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중용적 태도가 유의하게

이혜민 · 안도연 /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직업 유무 중심으로

표 2. 직업 있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우울					R^2 (adjusted R^2)	F (P)
	B	SE	t	$LLCL$	$ULCL$		
성별	2.69	1.13	2.37	.46	4.93		
1인 가구 여부	-1.62	1.16	-1.39	-3.92	.67		
사회적 고립 (A)	.65	.04	13.42***	.55	.74	.59	62.23
중용 (B)	-.10	.06	-1.71	-.22	.01	(.01)	(.00)
(A) × (B)	-.00 (<-.001)	.00 (>.001)	-2.64**	-.01	-.00 (<-.001)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자살행동					R^2 (adjusted R^2)	F (P)
	B	SE	t	$LLCL$	$ULCL$		
성별	1.01	.37	2.74	.33	1.78		
1인 가구 여부	-.74	.37	-1.97*	-1.50	-.010		
사회적 고립 (A)	.02	.02	.99	-.02	.06	.36	20.03
우울 (B)	.11	.02	4.95***	.07	.16	(.00)	(.00)
중용 (C)	-.01	.02	-.74	-.05	.02		
(B) × (C)	-.00 (<-.001)	.00 (>.001)	-.22	-.00 (<-.001)	.00 (>.001)		

주.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할당하고, 1인 가구 여부에서는 1인 가구인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할당함.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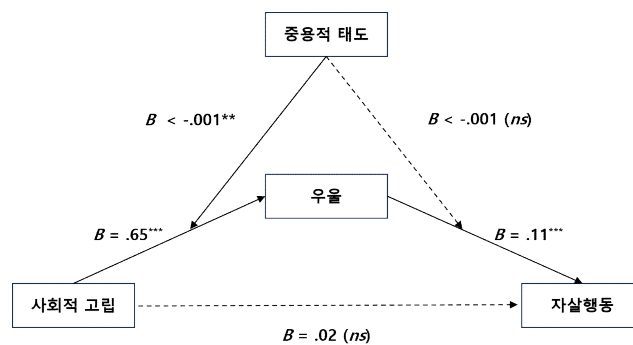


그림 2.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표 3. 중용의 조건부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t	LLCL	ULCL
- 1SD	.75	.06	12.15***	.62	.87
Mean	.65	.04	13.42***	.55	.74
+ 1SD	.55	.06	9.24***	.43	.6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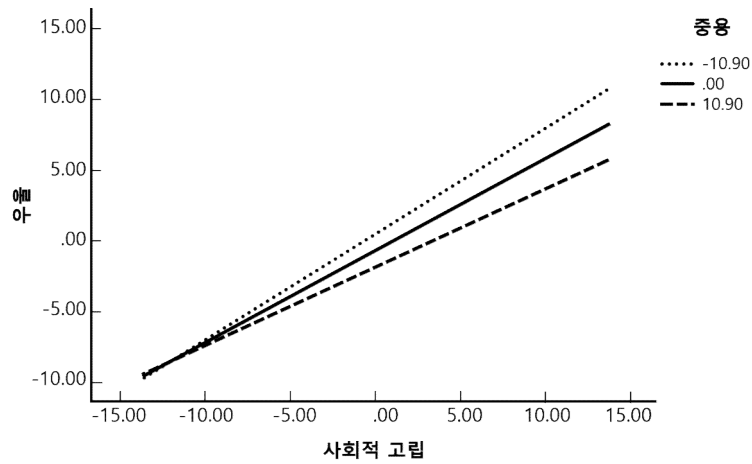


그림 3. 중용의 조건부 조절효과

표 4. 직업 없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우울					R^2 (adjusted R^2)	F (P)
	B	SE	t	LLCL	ULCL		
학력	-1.39	2.35	-.59	-6.06	3.27	.44 (.00)	19.26 (.00)
사회적 고립 (A)	.56	.07	7.80***	.41	.70		
중용 (B)	.01	.10	-.27	-.19	.22		
(A) × (B)	.00 (>.001)	.00 (>.001)	.44	-.00 (<-.001)	.01		

표 4. 직업 없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계속)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자살행동					R^2 (adjusted R^2)	F (P)
	B	SE	t	$LLCI$	$ULCI$		
학력	-1.06	.65	-1.62	-2.36	.23		
사회적 고립 (A)	-.00 (<-.001)	.02	-.249	-.05	.04		
우울 (B)	.17	.02	7.13***	.12	.21	.44 (.00)	15.59 (.00)
중용 (C)	.00 (>.001)	.02	.17	-.05	.06		
(B) × (C)	.00 (>.001)	.00 (>.001)	-.05	-.00 (<-.001)	.00 (>.0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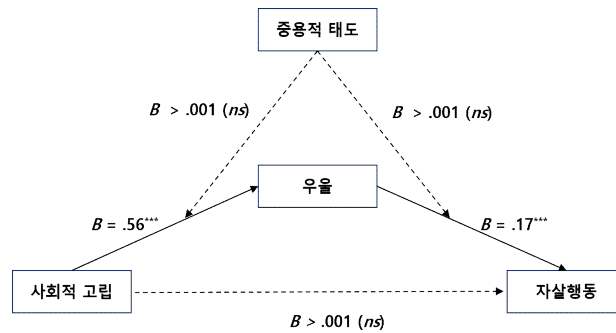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중용적 태도는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행동으로 가는 간접경로에 조절효과가 없었고 우울에서 자살행동으로 가는 간접경로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 그림 4).

논 의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점점 증가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은 우울, 자살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최지현 외, 2022)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여,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과 관계를 알아보고 보호하는 요인으로써 중용적 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고립은 직업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

는 경우에도 집단 내에서 소속감 부재를 겪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직업의 유무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변인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바, 직업의 유무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국내 청년들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 모두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행동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고립, 우울 및 자살행동과 중용적 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직업의 유무에 따라 주요한 변인 간 상관관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Biordi & Nicholson, 2009; Twenge et al., 2007)와도 일치하며 사회적 고립이 자살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기존 연구(Boardman et al.,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우울과 자살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우채영, 김판희, 2011; Hunt et al., 2006; Rihmer, 2007). 중용적 태도는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변인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안도연과 이훈진(2019b)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중용적 태도는 불안, 우울, 경계선 성향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자존감, 심리적 유연성, 마음챙김, 지혜, 성격 강점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행동도 부적응적인 심리 변인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두 집단에서 모두 우울을 완전 매개로 하여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층 및 청소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에 관한

연구들에서(박진영, 2016; 이묘숙, 2012; 이은지, 2021; 최봄이, 2021; Calati et al., 2019; Zhang & Jin, 1998) 사회적 고립은 자살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나,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을 매개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사하게 신경증 외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홍표, 2014). 또한, 우울증 환자에서 대인관계 상실 경험이 두 배 이상 높았고(Monroe et al., 1999) 이런 관계의 상실이나 거절 등 대인관계의 붕괴를 경험한 사람은 상실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장애의 유병율이 열 배 이상 높았으며(Kendler, et al., 2003) 감금 상태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 시도율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Felthous, 1997; Trout, 1980). 본 연구 및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이 우울을 통해 자살행동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요인으로 중용적 태도를 선택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업이 있는 집단에 한해서 사회적 고립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용적 태도는 정서조절 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중용적 태도를 취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들은 적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안도연 &

이훈진, 2019a, 2019b). 즉, 중용적 태도는 정서 조절 같은 개인적인 상황뿐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대인관계의 형성이나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직업이 있는 사람은 관계의 질에 상관없이, 직업이 없는 경우 보다 일상에서 대인 접촉의 기회 자체가 더 많은 반면 직업이 없는 집단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인 접촉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거쳐 자살행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용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여지가 적을 수 있어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는 중용적 태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없는 집단은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해 우울 및 자살행동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직업이 없는 집단이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 초점적 활동과 관계 초점적 활동의 개입 순서를 다르게 하여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 효과를 비교한 윤성민과 신희천(2013)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집단의 경우는 개인 초점적 활동을 통해 먼저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경험한 뒤에 관계 초점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해 심리적 취약성이 더 높았던 바 개인적인 정서조절 요소와 대인관계에서의 관용 등의 요소를 함께 측정하는 중용적 태도의 효과를 상쇄하는 등의 이유로 중용적 태도의 수준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직업의 유무에 따라 중용적 태도

의 어떤 측면이 더 효과적인지를 종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자세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사회 특성을 반영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서 '직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는 학교 교육에서 마치고 경제생활 시작, 취업 및 결혼을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성균, 2009).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이행이 장기 화됨에 따라 자아실현 기회, 소속감 등의 요인들이 박탈되어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 심리적 우울, 좌절감 등이 증가되면서(김태현, 임선영, 2005)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이 높아질 수 있다. 탁진국(2010)이 실시한 실업과 취업 및 재실업에서의 정신건강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직업의 유무가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직업과 일이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서 정신병리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초기 청년기부터 진로 탐색을 하고 진로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층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건식, 2024; 변금선, 김정숙, 2024).

둘째,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통해 자살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바,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립된 청년층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 상

태, 대인관계 양상과 고립정도 등을 파악하여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적응훈련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울의 완전매개 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청년들 중 특히 우울감이 높은 청년들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육의 확대도 중요할 것이다(김성아, 2023; 유민상 외, 2021).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조절 변인으로 잘 다루지지 않았던 중용적 태도를 조절 변인으로 적용하여 직업이 있는 청년 집단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용적 태도가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울 문제 및 결과적으로 자살 행동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안도연과 이훈진의 연구(2019a)에서 중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구체적인 행동 예시와 훈련 프로그램 4회기를 청년층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문제 및 부정적 행동이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처럼 직업이 있는 청년층에 중용적 태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중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우울,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감정과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고립 척도에서 측정하는 사회적 고립은 직업이 없는 청년들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직업을 가진 청년층의 사회

적 고립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립감 혹은 외로움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과 더 가깝다. 따라서 사회적 접촉이 부재한 상태를 기반으로 제작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과 치료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살행동은 자살을 시도한 후 자살이 완결되기 전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정신과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CES-D로 측정한 우울 수준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주요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절단점인 25점에 가까운 23.6점을 나타낸 바,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직업의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이 정신과 치료 여부에 의한 구분 혹은 정신과 치료력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변인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이었을 수도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수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자살과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하는 간접 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를 나타내어 사회적 고립과 자살과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우울을 거쳐 자살행동으로 가는 완전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또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https://www.hakjisa.co.kr/subpage.html?page=book_book_info&bidx=1176
- 김건식 (2024). 청년의 확장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4(1), 164-190.
<http://dx.doi.org/10.15709/hswr.2024.44.1.164>
- 김석호, 주윤정, 성연주, 김지애, 김은지, 이상규, 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 자본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http://dx.doi.org/10.17328/kjcs.2017.24..007>
-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9, 6-20.
<http://doi.org/10.23062/2023.05.2>
- 김영범 (2018).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429-39.
<https://doi.org/10.14400/JDC.2018.16.7.429>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정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https://doi.org/10.14816/sky.2016.27.3.257>
- 김정민, 박준희 (2011). 자살행동 예방을 위한 핵심마인드풀니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자살고위험 여대생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2(5), 1451-1471.
<http://doi.org/10.15703/kjc.12.5.201110.1451>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511881>
- 김지경, 정연순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3177>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단기정책보고서].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archives/41976>
- 김태현, 임선영 (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51-7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61652>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배진우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511865>
- 김효정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7(2), 132-138.
<https://doi.org/10.14370/jewnr.2011.17.2.132>
- 라채린, 이현경 (2013).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자살생각. *보건행정학회지*, 23(4), 369-37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031005>
- 류주연, 성기욱,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https://doi.org/10.16881/jss.2023.07.34.3.47>
- 박연환, 강희선 (2008). 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예측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5), 712-9.

- <https://doi.org/10.4040/jkan.2008.38.5.712>
박진영 (2016).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지*, 36, 1-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90065>
-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21(2), 41-73.
<https://doi.org/10.22862/kjsr.2020.21.2.002>
- 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 정신건강의 관계 - 서울 청년의 이주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67-108.
<https://doi.org/10.15855/swp.2024.51.3.67>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6643>
- 안도연 (2018). 중용의 적응적 기능: 중용적도의 개발 및 중용적 태도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817988>
- 안도연 (2022).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중용적 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4(8), 445-45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8612>
- 안도연, 김진숙 (2024). 부정정서전염과 자기비난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중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4), 558-569.
<https://doi.org/10.5762/KAIS.2024.25.4.558>
- 안도연, 이훈진 (2016). 유학적 개념과 일상에서의 경험 조사를 통한 중용(中庸)의 심리학적 정의 도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09-326.
<https://doi.org/10.22257/kjp.2016.06.35.2.309>
- 안도연, 이훈진 (2017). 한국판 중용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4), 421-440.
<https://doi.org/10.22257/kjp.2017.09.36.3.421>
- 안도연, 이훈진 (2019a). 중용(中庸)적 태도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2), 147-183.
<https://doi.org/10.22257/kjp.2019.6.38.2.147>
- 안도연, 이훈진 (2019b). 중용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유연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3), 275-2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1701>
- 안병덕, 이선영 (2016). A지역 의과대학생의 문화성향, 도덕성,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 *의학교육논단*, 18(1), 26-37.
<http://dx.doi.org/10.17496/kmer.2016.18.1.26>
- 우체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47592>

- 유계숙, 손현겸 (2015).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인관계 욕구와 삶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75-10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61784>
-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55257>
- 육성필 (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려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8599406&outLink=K>
- 윤성민, 신희천 (2013).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 활동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5요인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75-3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71749>
- 이묘숙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3), 231-2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99030>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16269>
- 이수인 (2016).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영향 요인과 심리적 영향 요인의 통합적 접근. *주사회와 정책연구*, 30, 104-13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8032>
- 이은지 (2021).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5875787>
- 이혜선, 권정혜 (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 (K-BSI)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155-117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2689>
- 이홍표 (2014). 신경증 외래 환자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및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59542>
- 장창민, 최의현, 최지영, 홍인숙, 정운성, 김경숙 (2018). 자살유가족매뉴얼. 학지사.
https://www.hakjisa.co.kr/subpage.html?page=book_book_info&bidx=3578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https://accesson.kr/healthpsy/v.6/1/59/27362>
- 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청춘'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1), 35-103.
<http://doi.org/10.17328/kjcs.2012.12.1.002>
- 주영, 이서정, 현명호 (2012).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감사의 증재

-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1(4), 1175-119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0185>
- 최봄이 (2021). 노년기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사회통합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연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5772091>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9147>
-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 사회복지학*, 74(2), 53-78.
<https://doi.org/10.20970/kasw.2022.74.2.003>
- 최태진 (2017). 대학생의 문화성향과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및 성차. *수산해양교육연구*, 29(6), 1994-2010.
<https://doi.org/10.13000/JFMSE.2017.29.6.1994>
- 탁진국 (2010). 실직상태 지속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87-69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6372>
- 통계개발원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90104010200&bid=12302&tag=&act=view&list_no=379502&ref_bid=
- 통계청 (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earch/search.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고립.은둔 청년 현*
황과 지원방안.
<https://doi.org/10.23062/2023.05.2>
- 한나리 (2009).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 반응*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연세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1926101>
- 허재홍, 오충광 (2018). 눈치와 개인의 문화성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1), 341-364.
<http://doi.org/10.21509/KJYS.2018.01.25.1.341>
- Biordi, D. L. & Nicholson, N. R. (2009). Social Isolation. In P. Larsen & I. M. Lubkin (Eds.), *Chronic Illness: Impact and Interventions* (7th ed., pp. 85-116). Jones & Bartlett Publishers.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Chronic_Illness.html?id=3MHK5cjX3Q4C&redir_esc=y
- Boardman, A. P., Girmbaldeston, A. H., Handley, C., Jones, P. W., & Willmott, S. (1999). The North Stafford shire suicide study: A case control study of suicide in one health district. *Psychological Medicine* 29(1), 27-33.
<https://doi.org/10.1017/S0033291798007430>
- Calati R, Ferrari C, Brittner M, Oasi O, Olié E, Carvalho AF, Courtet P(2019).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nd social isolation: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5, 653-67.
<https://doi.org/10.1016/j.jad.2018.11.022>
- Capuzzi, D. (Ed.). (2004). *Suicide across the life span: Implications for counselor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https://psycnet.apa.org/record/2004-00127-000>
- Cloutier-Fisher, D., Kobayashi, K., & Smith, A. (2011). The subjective dimension of social

- isolatio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older adults' experiences in small social support networks. *Journal of Aging Studies*, 25(4), 407-414.
<https://doi.org/10.1016/j.jaging.2011.03.012>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 31-48.
<https://doi.org/10.1177/002214650905000103>
- Felthous, A. R. (1997). Does "isolation" cause jail suicid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5(3), 285-294.
<https://jaapl.org/content/25/3/285>
- Griffin, J. (2010). *The lonely society?* Mental Health Foundation.
<https://www.counselling-london.org.uk/articles/lonelinessreport.pdf>
- Hämmig, O. (2019).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in general and in young, middle and old age. *PLOS ONE*, 14(8), Article e022212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9663>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dford Press.
<https://www.scrip.org/reference/referencpapers?referenceid=3495201>
- Hirsch, J. K., Wolford, K., LaLonde, S. M., Brunk, L., & Morris, A. P. (2007). Dispositional optimis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4), 533-546.
<https://doi.org/10.1007/s10608-007-9151-0>
- Hunt, I. M., Kapur, N., Robinson, J., Shaw, J., Flynn, S., Bailey, H., Meehan, J., Bickley, H., Burns, J., Appleby, L., & Parsons, R. (2006). Suicide within 12 months of mental health service contact in different age and diagnostic groups: National clinical surve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8(2), 135-142.
<https://doi.org/10.1192/bjp.188.2.135>
- Kendler, K. S., Hettema, J. M., Butera, F., Gardner, C. O., & Perscott, C. A. (2003). Life event dimension of loss, humiliation, entrapments, and danger in the prediction of onsets of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789-796.
<https://doi.org/10.1001/archpsyc.60.8.789>
- Lucas, A. G., Chang, E. C., Lee, J., & Hirsch, J. K. (2020). Positive expectancies for the future as potential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risk in adults: Does optimism and hope predict suicide behaviors in primary care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8, 41-53.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469-018-9922-8>
- Machielse, A. (2004). Theories on social contacts and social isolation. In R. Hortulanus (Ed.), *Social Isolation in Modern Society* (pp. 13-36).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020142>
- Matthews, T., Danese, A., Wertz, J., Odgers, C. L., Ambler, A., Moffitt, T. E., & Arseneault, L. (2016).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A behavioural

- genetic 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1(3), 339-348.
<https://doi.org/10.1007/s00127-016-1178-7>
- Monroe, S. M., Rohde, P., Seeley, J. R., & Lewinsohn, P. M. (1999).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Relationship loss as a prospective risk factor for first onse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06-614.
<https://doi.org/10.1037//0021-843x.108.4.606>
- OECD (2024).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data-00823-en>
- Osman A., Bagge, C. L., Gutierrez, P. M., Konick, L. C., Kopper, B. A., & Barrios, F. X.. (2001). The Suicide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SBQ-R): Validation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ssessment*, 8(4), 443-454.
<https://doi.org/10.1177/107319110100800409>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https://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Ran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ihmer, Z. (2007). Suicide risk in mood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0(1), 17-22.
<https://doi.org/10.1097/YCO.0b013e3280106868>
- Scott, G., Ciarrochi, J., & Deane. F. P. (2004). Disadvantages of being an individualist in an individualistic culture: Idiocentrism, emotional competence, stress, and mental health. *Australian Psychologist*, 39(2), 143-154.
<https://doi.org/10.1080/00050060410001701861>
- Trout D. L. (1980).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in suicide.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10(1), 10-23.
<https://doi.org/10.1111/j.1943-278X.1980.tb00693.x>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https://doi.org/10.1037/0022-3514.92.1.56>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https://doi.org/10.1037/0022-006X.76.1.72>
- Zavaleta, D., Samuel, K., and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205-016-1252-2>
- Zhang J., & Jin S. (1998).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uicide ideation in China.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4(1), 79-94.
<https://pubmed.ncbi.nlm.nih.gov/9495030/>

원고접수일 : 2024. 11.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4. 08.
게재확정일 : 2025. 04. 08.

Verification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Zhongyong Attitude in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f Young Adults on Suicidal Behavior: Focusing on Occupational Existence

Hyemin Lee¹⁾

Doyoun An^{2)†}

¹⁾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and Child studies,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Zhongyo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behavior of young adults by dividing them into occupational and non-occupational groups. A questionnaire survey including the online self-report was conducted using the scale of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dults,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BQ-R), and the Zhongyong questionnaire (ZQ) targeting 350 young ad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isolation of young ad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Zhongyong attitude. Second, in both groups, depression completely mediated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behavior of young adults. Thir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isol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in the entire group, bu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Zhongyong attitude was significant in the isolated young adults with a job.

Keywords : occupation, young adults, social isolation, depression, suicidal behavior, Zhongyong attitude

† Corresponding Author: Doyoun An /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Child studies,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 (18101) 8225, 137, Hanshinda-gil, O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E-mail: psydoyoun@hs.ac.kr